

예수님을 말하라

총동원 주일

2018.10.28



퀸즈장로교회

월간 아가페

제415호 2018년 10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4347 FAX (718) 886-5555

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 10월 말씀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爱加倍·Агапэ



말씀의 달 특집
삶에 도전, 위로, 치유를 주신 말씀
추천도서 - 묵상과 해석
성경 박물관 (Museum of the Bible) 탐방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전성호 목사 |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첸위지 목사 | 긴장 속 첫 축도

THE ONE | 3040 청년 찬양 부흥집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연재 기사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 길선주 목사

교육부 특집
새 교역자 소개 초등부, 고등부 인턴 전도사
부장선생님들을 만나요

QBC 특강
의인의 비전

2018.10

www.kapcq.org



한 입, 한 주제

사람에겐 눈도 둘이요, 귀도 둘입니다.
그러나 입은 하나입니다.

두 귀로 이것저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이곳저곳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입으로 이말 저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한 말만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영원히 외칠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 이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말해야 합니다.
이번 28일의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뿐 아니라
우리 생애에 예수님만을 주제로 말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 치유, 소망, 기쁨, 변화...등등

하나 밖에 없는 입으로 단 하나의 주제만 말해야 한다면
주저 마시고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ONE MOUTH, ONE SUBJECT

People have two eyes, two ears,
but only one mouth.

We can hear this and that with two ears,
We can see here and there with two eyes,
but, because we have only one mouth,
we cannot say two different things at once.

With one mouth you can only say one thing at once.
And, if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you must shout
out forever.
It is, "Jesus."

Jesus' name is alpha and omega.
Therefore, Jesus' name must be known forever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Not only on October 28th when we have our
Homecoming Day, but even after,
If Jesus is the center subject of our words, we will see
amazing things.
Salvation, healing, hope, joy, change, and much more.

So, if you must say only one thing with the one mouth
that you have,
Speak "Jesus" with no hesitation.

同口同主题

人有两只眼睛，耳朵也有两只，然而嘴却只有一个。

用耳朵可以听见这样那样的事，
用眼睛可以看见这样那样的事。
然而用一张嘴却不可说心口不一的话。

如果要用我们的嘴做永远的宣告，那“耶稣”应是唯一的主题。

耶稣的名是阿拉法又是欧米伽。
从开始到末了只夸口耶稣的圣名。
本月28日将是全教会总动员的主日。
如果我们的生平只讲耶稣基督，
那我们一定会经历很多奇妙的事情。
救赎，医治，盼望，喜乐，变化等等。

让我们用唯一的一张嘴，
只夸口唯有耶稣！

ВИДЕНЬЕ ПРАВЕДНИКА

НАША ЦЕРКОВЬ ИМЕЕТ ЧЕТЫРЕ ВИДЕНЬЯ
ЭТО УЧЕНИЧЕСТВО, ЕВАНГЕЛИЗАЦИЯ, ПРАВЕДНОСТЬ,
БОГОСЛУЖЕНИЕ
СРЕДИ ЭТИХ ВИДЕНИЙ, ВИДЕНЬЕ ПРАВЕДНОСТИ -
ВИДЕНЬЕ ДЛЯ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ИДЕНЬЕ ПРАВЕДНОСТИ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ПЕРВОМ
ПСАЛМЕ.
БОГУ НУЖНЫ ПРАВЕДНИКИ
КАКИМ ПОКАЗЫВАЕТ НАМ ПСАЛОМ ПЕРВЫЙ,
ПРАВЕДНИКА?

ЧЕЛОВЕК СЛОВА БОЖЬЕГО. РАЗМЫШЛЯЕТ НАД
ЗАКОНОМ (СЛОВОМ БОЖЬИМ) ДЕНЬ И НОЧЬ.
ЧЕЛОВЕК ДУА БОЖЬЕГО. ПОСАЖЕННЫЙ У ПОТОКОВ
ВОД(ДУФ СВЯТОЙ).
ЧЕЛОВЕК СОБРАНИЯ. ПРЕБЫВАЮЩИЙ В
СОБРАНИИ(ОБЩИНЕ)

МЫ ДОЛЖНЫ МОЛИТЬСЯ, УЧИТЬ, ВЕСТИ НАШЕ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ЧТОБЫ ОНИ ЖИЛИ ЖИЗНЬЮ
ПРАВЕДНИКОВ, ЖИЗНЬЮ УГОЖДАЮЩЕЙ БОГУ.
СЕНТЯБРЬ.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ТАМ ГДЕ НАФОДЯТСЯ НАШИ ДЕТИ, ПУСТЬ ОНИ НЕ
ЗАБЫВАЮТ О ВИДЕНЬИ ПРАВЕДНИКА.

아가페

제415호
2018.10

10월 교회 소식

“예수님을 말하라”

10/28 주일은 총동원 주일
*장결자, 초청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안내

1) 기간: 10/14부터 5주간
2) 문의: 각 교구장
3) 장소: 2부 예배 후 (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가을 새벽 부흥회

10/22-27 (월-토) 에 오전 5:45분에 있습니다.

- 2 신앙시론 | 의인의 비전
- 5 행복에의 초대 | 기다리시는 아버지
- 6 송이꿀 같은 말씀 | 예수님을 말하라
- 8 2018년 9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 9 말씀의 달 특집 추천도서 | 묵상과 해석 -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
- 10 말씀의 달 특집 | 삶에 도전 위로 치유를 준 말씀

- 13 행복의 초대 | 완성을 향한 미완성
- 14 말씀의 달 특집 성경 박물관 탐방! 박물관에서 만나는 말씀
- 16 청장년 3040 찬양집회 | 이 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 우리는 ‘노아가족’입니다
| 부흥을 꿈꾸며
| 상식을 뛰어넘는 삶
| 주님만 바라봅니다

- 19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
- 20 QBC 3030 특강 | 의인의 비전
- 22 2018 단기선교 보고예배

- |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길을 함께 가며
- | 喜乐的泉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 | 살아계신 하나님

- 24 미니 인터뷰
|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긴장 속 첫 축도

- 28 노회 목사 안수식 예배 | 주 예수께 받은 고귀한 사명
- 29 중국어예배부 추석맞이 대잔치 | 감사와 기쁨의 추석
- 30 중국어 예배부 추석맞이 총동원 주일 | 복음을 나누는 추석
- 32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 길선주 목사

- 34 교회학교 교역자 소개
| 내 삶의 이유와 목적
| 하나님의 부르심

- 38 교회학교 | 부장선생님을 만나요

- 42 십자말 맞추기

김성국 목사
편집부
편집부
편집부
오인수 목사

ZHOU WEN, 최덕송청년, 김지은집사,
심인보집사, 박정봉집사, 박훈집사, 김연희권사,
JENNIFER LEE, CHARIS CHOI, GUO YAO

편집부
편집부
정유성 목사
유재찬 집사
남형욱 장로
박지용 청년
명샷별 집사
편집부
홍한나 권사

편집부
ZHOU WEN
김하나

전성호 목사
첸위지 목사
정혜경 권사
Jiang Jiqiong
첸위지 목사
최성은 집사

전진영 초등부 인턴전도사
AUSTIN LEE 고등부 인턴전도사
윤지영 차동미 계연란 김형섭 차윤일 이규성
최미희 함용식
김기호장로

배워봅시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세요. UNGEROUN HANJUGAN DYESEYO.

祝您蒙福的一周. ZHU NIN MENG FU DE YI ZHOU /쭈닌 멩푸더 이쩌우

БЛАГОДАТИ ВАМ НА ВСЮ НЕДЕЛЮ

블라가다지 밤 나 브슈 네젤류/ BLAGADATI VAM NA VSU NEDELU

HAVE A BLESSED WEEK. HEV O BLESD WIK. /해브 어 블레스드 워.

기다리시는 아버지 Я ЖДАЛ ТЕБЯ!
天父等待着您 FATHER WHO IS WAITING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Бог очень сильно ждет тебя.
父神期待您的归来 God is Waiting for You



행복에의 초대
ПРИГЛАШАЕМ
幸福的邀请
Invitation to Happiness

2018.10.28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誠邀您與神有特別的相會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на особую встречу с Богом!
We invite you to this special meeting with God

퀸즈장로교회 ХПЦ "Квинз Все Народы"
皇后区韩中长老教会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예수님을 말하라

10월 28일 “행복에의 초대” 총동원 주일

사도행전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말합시다.
-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 우리 위해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
- 부활하신 예수님
-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신 예수님
- 구원자와 주님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장결자들을 데리고 옵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옵시다.
이웃들에게 전도합시다.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총동원 주일 10/28 함께 예수님을 말합시다.

초대합니다 ПРИГЛАШАЕМ
我们诚邀您 We invite you

예배·모임안내		본당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2:00 QBC 오후 2:15 영어 오후 12:00 중국어 오전 9:30 오후 2:30 러시아어 오전 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고등부실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새가족현영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영성훈련	목요일 오후 8:00	

교회학교안내	
영아부	영아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중등부실(4층)
고등부	고등부실(3층)
청년대학부	본당
청년선교부	본당

QPEM Worship Service
Lord's Day Worship Sundays 12 PM
Wednesday Night Prayer Wednesdays 8 PM
Praise & Prayer Night
1st Wednesday of every month 8 PM
College Group Fridays 7 PM
Young Adults/ Singles
3rd Saturday of every month 1 PM
Small Groups Twice a month at various times
Discipleship 4th Sunday 2:30 PM

中文堂 每周聚会
主日崇拜(第一堂) 周日上午 9:30-11:00 副堂
主日崇拜(第二堂) 周日下午 2:30-4:00 副堂
主日早聚会 周日上午 8:45-9:15 二楼209室
成人主日学 周日上午 11:00-12:00 体育场
新朋友班 周日上午 11:00-12:00 楼下802室
幼儿部(2-5) 周日上午 9:30-11:00 楼下803室
儿童部(6-7) 周日上午 9:30-10:30 楼下802室
少年部(8以上) 周日上午 9:30-10:30 楼下806室
初中高中主日崇拜 周日上午 10:30-12:15 三楼315室
查经班 周二晚上 7:00-8:15 副堂
三元布道 周二晚上(季度) 8:30-10:00 三楼316室
祷告会 周三晚上 7:00-8:15 三楼315室
门徒训练 周三晚上(季度) 8:15-10:00 三楼315室

Наши собрания проходят
Воскресенье 8:30 am
Среда 7:30 pm
Четверг 7:30 pm
Пятница 7:30 pm

퀸즈장로교회 皇后区韩中长老教会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 (718) 886-4040,4340,4347
中文 (347)965-0343 ТЕЛЕФОН (917)940-0596 Пастор Владимир

예수님을 말하라



2018년 9월 16일 주일 설교
사도행전 5:33-42

사람은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일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뉴스, 종교, 취미, 음식, 건강 등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 놓고 다시 틀어 본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에 대해 선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행 5:36)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가 자기도 망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던 사람도 망하게 했습니다. 다음 구절의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사람을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살았을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행 4: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행 4: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행 4: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행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 세상의 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 있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행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 4:21)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수님을 말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을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대상, 말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맺혀지길 축원합니다.

1.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 5:40) 그들이 옹계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행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말했다는 이유로 매 맞는 사도들을 봅니다. 이들은 이런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좋아 하며 말하는 것, 아무 감정 없이 말하는 것, 미워하며 말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듣고 있으면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말인지 사랑하며 존경하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통해 아내를 왕비같이 여기는지 하녀같이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말하려면 그를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상반절 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ESV)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 원 뜻입니다.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도 잔소리로 들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반발합니다. 누구에게 결혼을 프로포즈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포즈하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나 만볼짜리 반지 준비되었어. 나 연봉이 이십만불이야. 알았지? 너 나

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사랑의 말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그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먼저 기뻐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처음 듣는 자도 있지만 미국 같은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전에 여러 차례 들어 봤어요.”, “교회 다녀 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이 말할까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말했던 누군가가 맹송 맹송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런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2. 말하는 대상

사도들은 누구에게 말하였을까요?

(행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는 자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열심 있는 자도 있고 그저 구경삼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작 거리는 장소였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족이나 이웃, 또는 손님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카멜레온 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 자기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동물입니다. 풀밭에서는 녹색이 됩니다. 땅에서는 땅색이 됩니다. 모래밭에서는 모래 빛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꾸며서 도무지 구별을 못하게 하는 동물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추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골프 등 운동하는 데서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 합니까?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돈이 있던 없든, 많이 배웠던 아니던, 조금 착하던 아주 못했던, 남자던 여자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갑니다.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은 지금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3. 말하는 내용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행 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고 그와 똑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 되었습니다. 이 구원자, 예언된 메시아 그 분 자신이 오셨으나 정작 알아보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을 맞으러 공항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뵈는 분은 그 분에 대한 사진이나 여러 설명을 듣고 나가서 기다립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하시다는 목사님을 맞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 목사님을 기다렸고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간 것 같은데도 그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퀴즈장로교회에서 나오신 분입니까?”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분이 자기가 어느 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로 모시고 오면서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으로서 말투가 너무 점잖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차로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또 한국에서 그 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보면서 그 분의 사무실까지 들어가 보면서 그 분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든지 그 분에 대해 술술 그리고 확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면 방해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행 4: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10월 28일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말합시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2018년 9월 2일 주일설교 (출 40:1-38)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제사장 옷이 지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성막을 잘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막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시대의 성막입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손발을 씻고 제단에 가까이 나가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사모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은 왜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며 빛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따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2018 9월 9일 주일설교 (요 5:1-15)

내가 낮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을 의지 할 수 없는 자를 향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1. 잃은 꿈을 찾으라

내가 낮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상황을 원망합니다. 소원이 성취되지

않고 오래되면 점점 그 소원이 사라지고 찬란한 꿈 대신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꿈을 다시 찾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2. 익숙한 것 버려라

환부작신(換腐作新): 우리의 삶에서 낡은 것을 바꾸고 새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 능력을 근거로 그는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가장 큰 방해꾼은 내 자신의 고정관념입니다. 나의 고정 관념, 제도,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도 잘못된 익숙함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낮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잘못된 익숙한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3. 나를 알라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치침은 육신의 질병과 죄의 문제까지 고치십니다. 내가 낮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육신 뿐 아니라 영의 질병까지 낫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그 눈이 열려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018년 9월 23일 주일 설교 (요 6:27-40)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음식을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1. 이 떡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떡,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을 듣고 소화, 결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차원이 될 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셨습니까?

2. 이 떡은 공짜다

생명의 떡은 완전 공짜, 어떤 조건도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완전 공짜요 은혜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은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명령의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명령을 행하는 것이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이

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3. 이 떡은 무덤을 비운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비오스, 프쉬케, 조에입니다. 비오스와 프쉬케는 지상에서의 목숨,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조에라는 떡을 먹고 이 조에를 가진 자의 무덤은 비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 문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의 승리를 확신할 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그 승리를 믿고 선포하고 누려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은혜의 떡을 먹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갑시다. 이 예수님을 말합시다.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가?

오인수 목사



책 제목
묵상과 해석

저자
정성국 목사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QT한 내용을 성도와 나누는데 같은 본문인데도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없으신가요? 평소에 은혜 받았던 구절을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다른 해석이어서 내 묵상이 틀린 건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귀한 책을 소개합니다. 이 “묵상과 해석”이란 책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정성국 목사님께서 “큐티를 위한 해석학적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에 연재한 글들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입니다.

사실 큐티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은혜받으신 묵상과 해석을 존중하고 변호하려는 이 모습이 이 책을 성도님들께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자는 “나는 일반인들의 묵상에서 발견되는 ‘선의의 해석 오류’들을 변호해 주고 싶었다.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성경 해석의 전체 속에서 말

이다.”라고 서문에서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은 단 한 가지 의미만 담기에는 이미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랍고, ‘예수’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친히 조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성경의 시대 배경, 전체 문맥, 목적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다가 자칫하면 이단 됩니다. 저자는 ‘IVP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개최한 포럼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에 발제자로 초청받으면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 읽기와 삶 읽기가 만나는 곳이 말씀 묵상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 것이 울을 일인지, 웃을 일인지, 두려워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 해석을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이 성경 읽기와 삶 읽기가 만나는 곳이 말씀 묵상입니다. 누구의 묵상과 해석 방법이 최고일까요? 저자는 예수님과 신약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들, 종교개혁 인물들을 보며 묵상과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살핍니다. 이 책의 백미는 말씀 묵상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네 가지 프레임 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라는 눈을 가지고 읽으면 잘못된 묵상에서 안전하기도 하고 길잡이가 있기에 더 깊고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묵상하기
2.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묵상하기
3.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묵상하기
4.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로 묵상하기

어떤 내용일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궁금하시지요? 책을 사 보시면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교사 세미나 때 ‘묵상과 해석’이란 주제로 저자이신 정성국 목사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의 맛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神的话语鼓励及安慰我!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青年 ZHOU,WEN 청년

弟兄姐妹，平安。感谢神一直用祂的话语来光照，鼓励及安慰我。我起初是个迷茫的人。神的话语解答了我一直以来对三观的疑惑。

在人生观，神告诉我说，我的身子是圣灵的殿，所以我要成为圣洁，让圣灵入住；而且我不是属于我自己的，而是神用重价赎回来的，所以要被圣灵充满，行各样的善事来荣耀神。每次我得罪了神，我都很灰心责备自己的软弱，但神说人若认自己的罪，祂是信实的，是公义的，必要赦免我的罪，洗净我一切的不义(约一 1:9)。

在价值观，我曾经以为神希望我能在物质上荣耀祂。后来神告诉我，这世界和其上的情欲都要过去，惟独遵行祂旨意的，是永远常存(约一 2:17)。我活着不是为了舒适而活，也不是为了向这个世界索取而活。

在世界观上，神说世人都犯了罪亏缺了上帝的荣耀(罗 3:23)。所以世上没有好人坏人，只有罪人。神爱世人，甚至将祂独生爱子耶稣基督赐给他们，叫一切信祂的，不至灭亡，反得永生(约 3:16)。这里我知道世界上有太多罪人，神要救他们，所以我要去使万民做祂的门徒。哈利路亚!

샬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처음에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3가지 가치관에 대해 말씀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인생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성령의 전이므로, 제가 거룩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자신 또한 저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성령충만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번 저는 하나님께 범죄하기에, 자신의 연약함때문에 낙심이 될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요일 1:9) 고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이땅에서 사는 것이 안락한 삶을 위해서도 아니고, 무언가를 누리기 위함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청년대학부 최덕송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33: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필라선교를 다녀온 청년대학부 최덕송이라고 합니다. 저희 필라선교팀은 오인수목사님, 박정봉집사님, 이동훈집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청년들로만 구성된 선교팀 이었습니다. 뮤지컬,여름성경학교 등등 많은 선교사역들을 준비하다보니 정말 저희의 힘만으로는 안되겠다는걸 깨달았고 이 말씀은 우리 필라팀이 가장 많이 나누고 목상했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거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일정마다 기도로 시작했고 매일매일 한시간씩 기도모임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고 역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필라선교 현장에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큰 도전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음으로써 응답받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는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갯즈윌선교회 김지은 집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시편 121편 1~2절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 동안 나를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시험관 시술을 하러 간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무렵 친정어머니께서 한국을 1달동안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저를 놓고 기도하실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한달 동안 저와 어머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셨고 오직 나의 피난처되시고 도움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있었지만 태의 열매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되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항상 나를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아굴라선교회 심인보 집사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2년 반 전에, 저는 제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5년간 운영했던 작은 비즈니스를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업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폐업을 피할 수 없었고, 줄지에 취직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세 자녀의 아버로서, 한 가정의 가장인 제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40대 중반에 취직자리를 구하기는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이 말씀을 간절히 간절히 붙잡고, 매일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제겐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3개월 전에 한국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낙심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1년 전 도미할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음이 불현듯 기억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제 삶의 평생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예배와 찬양으로 힘과 능력을 얻으리



바울선교회 박정봉 집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19-21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저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연약함이 덮어지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사랑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이.. 단단하기만 한 제 마음이 물처럼 완전히 녹아져내린 느낌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자랑할만 한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때, 내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영광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 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쉼 새 없이 참소하는 사단의 조롱과 침륜에 빠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짐 같은 힘과 능력이 부여될 것을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바울선교회 박훈 집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4:6-7

호황이라는 미국의 경기에 미치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으로 어려운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매출을 허락 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우기 두달 넘게 좋은 룸메이트를 구하며 기도함에도 응답하셔서 한시를 놓게 하시니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말씀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년축복성구를 되새기며

루디아선교회 김연희 권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17:29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시간에 모두가 자축하는 세상행사를 뒤로하게 하고 설레임을 갖게하는 기다림은 우리만이 느끼는 행복과 감사가 아닌가! 수십년간 그렇게 지내왔다. 뻑뻑이 채운 성전에 앞자리로 부터 순서대로 줄을지어 기다리던 축복성구를 선물로 받는다. 나 또한 받아드는 순간 눈길을 바로 가져가지 않을수가 없게 하는 설레임 그 자체이다.

30년 가까이 우리가정은 그렇게 준비하며 축복성구를 받고 마음에 새기며 일년을 지낸다. 올해는 사무엘 하 7:29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벽제단을 하나님앞에 지키며 나의 가정이 하나님앞에 서기를 위해 소원하며 지내고있다. 내 경대거울에,일 하는 책상 앞,그리고 늘 일하며 소지

하는 바인더에 복사를 해서 나와 가까이 있게하며 친숙하게 일년을 지낸다. 새 성구를 받을때까지.. 해가 거듭할수록 더 진지해지는것은 하나님께서 일년의 양식으로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 부부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며 살게 하시는 축복이기때문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않는다.

REJOICE IN HIM

SENIOR HIGH JENNIFER LEE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6-18

Whenever I or my mom are going through a hard time we have always shared this verse. To me this verse gives me strength because God it shows that God already has everything planned for me and all that I need to do is thankfully rejoice in him by lifting up my praise to him. It is a great comfort to hear this verse and have it at heart because it shows me to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reassuring me that God has everything in his control.

FOREVER MY ROCK

JUNIOR HIGH CHARIS CHOI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Isaiah 26:4)

Isaiah 26:4 is saying the Lord, our God is eternal and you should love him forever because He is forever. God stays with us forever. Many things can change but God never changes. Sometimes I feel hurt because people can change their minds but God never changes. So He is my rock.

耶稣的爱话语来激励我！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彭涛青年 GUO, TAO 청년



“我心里柔和谦卑，你们当负我的轭，学我的样式；这样，你们心里就必得享安息。”太11:29。

我来韩中长老教会的这9个月以来，从初识，相交，到到这个大家庭献上自己的一份爱，经历了一段时间的低谷、生命十字路口的徘徊抉择，直到后来真正意识到自己罪的同时，神的话语降在我的心里，“因为神差祂的儿子降世，不是要定世人的罪，乃是要叫世人因祂得救。”—约翰福音 3:17。与兄弟姐妹经历的生命当中让我看到，神的爱在我们所有人身上，因为神就是爱，因圣灵住在我们里面，所以我们有了爱的能力，“你们若有彼此相爱的心，众人因此就认出你们是我的门徒了。”—约翰福音 13:35。今年8月底送我母亲上回国航班的那一刻，望着母亲渐渐微驼的背影消失在人群中，隐忍在我心中对妈妈的那份爱被与我一路同在的主耶稣融化了，如水般柔和，感恩主耶稣与我一路的同在，感谢弟姐妹事奉主耶稣道路上一路的同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9

제가 퀸즈장로 교회로 온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저는 골짜기를 지난 적도 있었고, 생명의 십자가 앞에서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히 저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공동체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올해 8월말, 저는 중국으로 가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보내 드리는 순간, 굽은 허리로 사람들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속에 참고 있었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드럽게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완성을 향한 미완성

함께 풀어나가는 과제
-마이클을 전도해 주세요!



시선이 마주치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는 청년이 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차를 하고 성전을 향할 때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청년이다. 그의 이름도 몰랐고 그저 눈이 마주치면 손만 흔들어 반가움을 대신할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Michael) 22살 청년, 프에르토리코에서 3살때 식구들과 미 본토로 이주 하였던다.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밤사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청년의 임무이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삿짐 나르는 일도하며 타투 아티스트로 수업중에 있단다.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않되는 마이클에게 수요일에 영어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지난 7개월간 아무도 전해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였다. 전해 들은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벽 예배 전에 초소를 방문하였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청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많은 분들이 친절히 잘 해주신긴 하였는데 그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의 자리엔 초대가 없었던 것이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에 전도 대상자가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이야기하며 풀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이클 외에도 두명이 더 초소를 번갈아가며 지킨 것으로 기억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고 함께 예배하도록 권해졌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마이클이 언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런지, 또 다른 근무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미완성된 우리의 임무를 완성시킴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성경 박물관 탐방 박물관에서 만나는 말씀

편집부

이번 아가페 탐방에서는 Washington DC (400 4th St SW, Washington DC 20024)에 위치한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을 소개한다. 2012년에 부지를 마련하고 500여만 달러를 들여 2017년 11월 개관한 이 성경박물관은 연방의회에서 세 블록, 내셔널 몰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43만 스퀘어피트 부지에 자리잡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2000년 전의 성경을 오늘날의 IT기술을 빌어 박물관 고유의 역할과 가치를 담은 신개념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관심에 따라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자신의 수준에 맞춰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많은 이들에게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접하게 한다는 취지로 미국 내 9개 교단의 협력 하에 세워졌다. 특별히 한인 교계도 박물관 건립에 6만여 달러의 기부와 기도로 참여하여 박물관측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한다.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곳은 4만 4천 여 점의 성경 사본과 유물 등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자료 공개와 갖가지 전시가 이어진다. 관람객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따라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10개 언어로 입력된 디바이스를 대여하나 아쉽게도 한국어는 제공되지 않는다.

박물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하 1층은 순회 전시관이 있는데 현재는 Stations of the Cross와 Jerusalem and Rome: Cultures in context in the first century CE주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층은 Gutenberg Bible 의 라틴어 창세기 첫줄들을 새겨놓은 40-foot 높이의 동문(bronze gate)인 'Gutenberg Gates'를 통해 들어가게 되며 성경, 자연, 웅장한 건축의 이미지들이 새겨진14-foot길이의 Grand Hall Ceiling이 펼쳐져 있다. 로비 카페 Milk +Honey Cafe 와 대형 터치스크린 테이블을 갖춘 오리엔테이션 공간, 바티칸 도서관과 바티칸 뮤지엄, 34개 유명 성경 속 장소에서의 가상 체험 여행(virtual reality tour)실과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게임 룸 등이 있다.

2층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자료의 전시장으로 언어, 예술, 건축물, 과학, 예술 등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려볼 수 있는 유물들을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게 된다. 'Bible in America', 'Bible in the World', 'Bible Now', 그리고 'Washington Revelations'의 관람실이 준비되어 있다.



4th floor_illuminationations

3층은 'Stories of the Bible'을 테마로 신약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과 'The Hebrew Bible Experience' 가 준비되어 있으며 나사렛 마을 모형관은 1세기 예수의 마을을 재현했다.

4층은 성경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장 (The History of the Bible Artifacts, Drive Thru History of the Bible Theater, illuminationations, 그리고The New Discoveries Gallery)들과 'Bible Reading Room'이 있다.

5층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유물전시관과 영화, 오페라,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472석의 대형 시네마 극장 (World Stage Theater)이 자리했다. 현재는The People of the Land: History and Archaeology of Ancient Israel과 Pilgrim Preacher: Billy Graham, the Bible, and the Challenges of the Modern World, Noblewomen and the Bible: Seven Stories from the House of Stolberg 그리고 Sacred Drama: Performing the Bible in Renaissance Florence 의 전시회들이 진행중이다.



4th floor_History of the Bible



2nd floor_The Bible in the World_at-museum-of-the-bible



3rd floor_The Wold of Jesus of Nazareth_biblemuseum31

6층은 성경박물관 건립 후원자들의 명단이 적힌 벽면과 Chef Todd Gray가 하는Manna레스토랑 , 바이블 rooftop가든, 이벤트 홀이 있으며 종교와 학계의 성경 관련 자료 활용은 물론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장소까지 마련되어 있다. 개관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 멤버 조기 입장은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이다.

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으나 물론 후원금은 계속해서 받으며 제안 입장료 금액은 성인은 1인당 \$19.95, 어린이는 \$9.95이다. 박물관 웹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museumofthebible.org/museum/explore>



1st floor_Grandceiling_window

THE ONE

이 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유성 목사 (덴버 한인북부장로교회, 프뉴마워십)

3040청년 세대의 부흥집회 The One 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경찬팀의 초청으로 이틀간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올 해도 다시 불러주셔서 사실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같은 강사를 매년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조금 더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집회 요청을 감사함으로 수락했습니다.

집회 몇 개월 전에 오인수 목사님께 금번 집회의 주제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정해드리고, 삼일간 집회의 메시지 타이틀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집회 열흘 전 아침에, 주님께서 주제찬양을 만들기 원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최근엔 작곡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던 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기에 집회의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까지 품었던 비느하스처럼, 익숙하고 편한 자리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불편하고 어색한 땅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룻처럼,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십자가만 붙들고 더 겸손히 자세를 낮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노랫말을 다 완성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시는 멜로디를 받아 세워가며 차근차근 살을 붙여가며 다듬고는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이미 금식기도체인을 엮어서 기도하셨고, 특송연습을 위해 모일때마다 주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를 퀴즈교회의 20-40대 성도님들안에 쏟아부으셨는지를 들었을 때, 이미 제 안에는 성령께서 이번 집회를 기뻐하시며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급히 보내드린

주제곡을 주일예배에서 미리 부르시던 영상까지 받아보고는, 기대를 넘는 확신을 가지고 덴버에서 뉴욕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3일 동안 매번 2시간 길이의 집회를 인도하는데, 찬양과 기도와 설교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집회를 인도하려면, 인도자인 저보다 찬양팀의 동역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번 집회는 3일 모두 조금씩 다르게 찬양팀이 구성된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개 이런 집회는 팀을 데리고 오거나, 한 팀이 점점 더 호흡을 맞춰가면서 3일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완성도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오시는 성도님들도 1시간만에 퀴즈장로교회 찬양팀들이 갑자기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그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 집회를 인도해본 제 경험으로는, 제일 앞자리에서 김성국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아니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3일 집회 전체에서 영적 중심을 잡아 주시면서 전심으로 예배하실 것을 믿었기에 평안함도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의 일들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개의 찬양팀들은 마치 수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것처럼 완벽하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예배사회와 기도와 성경봉독의 순서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성껏 진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매일 밤 마다 펼쳐지던 특별찬양들은 천국의 축제를 미리 경험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훌륭하고 즐거웠습니다. 합심기도를 할 때도, 개인적인 결단으로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서로 부둥켜 안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THE ONE 특별 찬양중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도, 성령께서는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며 그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젊은 세대가 죽어간다. 교회에 청년세대가 사라져 산다. 미래의 일꾼들을 교회가 키우지 못한다. 교회들이 고령화된다... 이런 최근의 한국과 이민교회의 현장의 목소리는 적어도 제가 3일동안 만나고 함께 예배했던 퀴즈장로교회 안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말들이었습니다. 뉴욕에 소망이 있는 것은 지난 3일간의 집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선포하며 외치며 찬양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을 담고 순종하시던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분에 넘치게 섬겨주신 김성국 목사님과 오인수 목사님, 김재형 목사님, 그리고 남형욱 장로님과 최원일 장로님, 그리고 일일이 거명치 못하는 모든 찬양팀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은혜나눔 우리는 ‘노아가족’ 입니다!

유재찬 집사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등록된 지 2달 정도 된 퀴즈장로교회의 새신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흥회에 참석해 보았지만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하는 부흥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집사님의 부탁으로 ‘노아 가족’ 이 등장하는 연기를 맡게 되어 부흥회 시작 전 연습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중 저녁, 피곤한 일과를 마친 늦은 시간이었지만 청년, 장년부가 모여 서로를 다독여가며 단합된 모습으로 찬양과 울동, 연기를 연습하는 모습은 저희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경찬팀의 찬양, 간략한 설교와 함께 목사님과 부르짖는 결단, 중보기도로 이어진 부흥회에서 온 교인들이 하나되어 찬양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롭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부흥회 참석 후 저희 가족은 ‘노아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출석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은 낯선 저희를 은혜로운 자리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년 3040 청년 찬양부흥회 - THE ONE 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퀴즈장에서 신앙생활하며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케치 부흥을 꿈꾸며

남형욱 장로

지난 9월 19, 20, 21일의 삼일 동안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3040청년 찬양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덴버북부한인장로교회를 시무하시는 정유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THE ONE - GOD,CHURCH,WORSHIP-ER,MISSION 이라는 새로운 집회명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찬양 부흥집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청년들과 30,40대 선교회가 THE ONE 찬양팀을 만들어 7월부터 3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작은 뮤지컬과 같은 찬양과 안무를 준비해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팀들은 오랜 시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값진 시간들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집회를 위해 3개월의 긴 여정을 함께 한 50여명의 THE ONE 찬양팀의 헌신된 모습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기대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두번째 찬양 부흥집회를 인도하시는 정유성 목사님은 이번 집회 말씀을 준비하며 주제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기까지 집회에 정성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집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감명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집회가 있던 삼일의 저녁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찬양을 통해 삶의 고단함을 주님께 위로 받으며,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교회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사명자로 힘있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는 더 이상 부흥이 없다”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 “그렇지 않다” 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THE ONE 집회를 통해 우리의 청장년 세대들이 앞으로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더 교회와 담임목사님 사역에 힘써 일하며 교회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30,40대를 통해 우리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나갈 것을 확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THE ONE 집회로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에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은혜나눔

상식을 뛰어넘는 삶

청년선교부 박지용



한창 7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을 즈음 평소와는 달리 평일 저녁에 교회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그 때 머릿속에 또렷한 한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배고파, 배가 고프구나. 그것도 아주 많이...’ 첫 모임 때 어떤 것을 할지와 간략한 컨셉과 방향성 그리고, 가장 민감한 연습 모임 시간을 정하였는데, 여러의견 끝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에 모이기로 정하여졌다.

평균 7시넘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8시 전에 저녁 식사를 끝 마쳐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나에게 저녁을 못 먹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을 그날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불만스러운 모임이 매주 착실하게 진행되어 갔으며 4주 정도 지났을 때 즈음 모임안에서 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 했다. 물론, 중간 중간 내안에 작은 음성하나가 들려왔다 라든지 아침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건 전혀 없었고, 눈치와 적응력이 나를 이끌었다라는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대답이다.

그렇게, 남장로님께 no를 못한 청년의 시간은 흘러 the one 부흥 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중의 한마디가, “세상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상식을 뛰어넘

는 삶은 살아야한다.”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보았다고 할 만큼 그 음성이 확실하게 나로 향하여 날아오고 있었다. 내 삶의 방식이 상식적인가? 아니 내 삶의 방식은 상식적으로 성경적인가? 성경적으로 상식적인것은 무엇인가?

지난 연습기간동안 ‘주님이 찾으시는 한사람 그 예배자’는 내가 아닌것은 진작에 알았다. 주제가 ‘The ONE’ 으로 정해졌음에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이번에만 참여하고 다음부터는 빠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던 나다.

얼마나 곱씹었을까.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성경적인 상식의 삶인 것을.

얼마나 더 곱씹을까. 생각의 정리가 되는 시간이 짧을 수록 민망함의 깊이는 깊은 것임을.

언제쯤이면 다 소화가 될까.

항상 챙겨 먹어야만하는 저녁 말고.

딱 세글자. ‘예배자.’

주시는 말씀같았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 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요즈음 저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해도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는 저의 삶은 목적지가 없다는겁니다. 저에게 ”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 이 특별한 집회에 참여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장 이취임식 예배

철저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 배출을 위하여



글로리아의 서창 ‘주기도문’으로 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예배가 시작되었다. 9월 2일 주일 오후 5시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와 위대 하심’이 선포되었고, 일생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장영춘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소개되었다. 44년의 퀸즈장로교회를, 신학교 설립과 함께 31년을 학장으로, 그리고 미주 크리스찬 신문을 통한 사역이 다시 한번 소개되었다.

훈탁해져가는 시대에 오직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 동안 479명의 신학생들이 동부 개혁장로회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었다. “엘리아의 시대가 마감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림같이” 인본주의,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는 이 세대에 이임하시는 장영춘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취임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에게 그 사역 또한 이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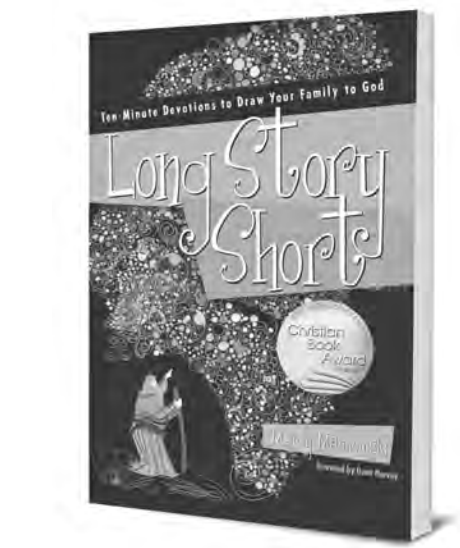
1987년 설립된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많은 신학생들이 세계 여러곳에 흩어져 순수한 말씀 중심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이 장목사님의 이임사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31년의 노고가 감사패와 화환으로 대신될 수 없기에 멈추지 않는 박수가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달려오신 노고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회복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염원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모든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취임사를 통하여 힘되고 외로우셨을 길을 달려가신 장목사님의 뒤를 이어 신임 학장 김성국 목사님도 달려갈 것임을 말씀 하셨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 전파’인 좌우명아래 오직 말씀으로만 신학교를 섬기시겠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기를 소망하셨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하여 마지막 만찬의 시간까지 31년의 동부 개혁장로회 신학교의 첫번째 마무리가 있었고 이어지는 시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며 신학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의인의 비전

홍한나 권사



가정예배 교재 - 한국어와 영어가 있다

“여호와여 지금 이시간 다 시행하소서 우리에게, 마르고 찢겨진 삶 속에 부흥의 비 부으소서 여호와께서 우릴 위해 큰 일을 친히 행하셨으니거대한 추수가 있으리니 환호성을 지르리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찬양 중

3040 선교회가 연합하여 QBC 특강을 시작하는 첫 시간, 강사인 오인수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찬양을 부르면서 직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지를, 그리고 때론 그 눈물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엔 무언지 모를 간절함과 비장함이 있었다.

9월 한달동안 QBC에서 3040 선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교회 4대 비전 중 하나인 ‘의인의 비전’ 을 주제로 특강을 열게 된 데에는 교회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교육이 절실하다는 교육부의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의인으로 세우는 이 비전은 특정 세대, 특정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부서가 함께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는 일에 헌신할 때만 가능한 비전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물론 강의 몇 번으로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신앙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아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하기에 당장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추수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기경하고 파종하는 일에 3040 세대가 앞장서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왜 의인의 비전인가?

교회의 각종 여름사역이 마무리되고 아이들이 새학기 준비로 한창이던 8월의 끝자락, 담임목사님과 교육부 지도자들은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나누기 위해 이틀간의 세미나를 가졌다. 교회 교육의 최전방에서 있는 교육부 지도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떠도는 현장 속에서 ‘다음세대를 향해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다음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가?’ 사실 그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해주어야 한다.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인이라 칭함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 그 열매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자, 이를 가리켜 시편 기자는 복있는 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요, 의인들의 모임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자란 다음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의인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첫번째 시간 – 의인의 비전

우리교회의 4대 비전은 제자의 비전, 복음의 비전, 의인의 비전, 예배의 비전이다. 그 중 의인의 비전은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며, 시편 1편에 기초하여 시편 전체에 세워진 비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임의 사람이다.

시편 1편을 정독하며 복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인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교회와 가정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강의와 소그룹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룹에서 나온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갖고 있던 다음세대 양육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비전이 “의인의 비전”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두번째 시간 –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담고있는 시편 119편은 176번에 걸쳐 말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가치, 무게, 귀중함, 정결함을 아는 자, 진리로 인도하는 빛 되신 하



각 가정의 가훈 액자

나눔말씀에 늘 갈급해 하며 그 말씀과 함께 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말씀 묵상이란 성경읽기와 삶 읽기가 만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읽어내는 경건활동이 말씀묵상인 것이다. 묵상은 나와 말씀, 그리고 성령님과과의 대화이기에 성령님과 친할 수록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게 알수 있다. 바른 말씀 묵상과 해석은 예수님의 묵상 프레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신앙 공동체 이야기-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부모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해답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길은 바로 말씀 묵상에 있다.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특히 신앙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롤모델이 되어야 가능하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자세와 모습을 좇아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날 배운 묵상 프레임을 사용해 시편 1편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과제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성숙한 묵상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

세번째 시간 –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온갖 영양분을 흡수하여 잘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뿌리 내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 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자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로는 다윗을 들 수 있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였고(삼상 16:13)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였다.(삼상 16:18)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를 자라고 하셨다. (행 13:22)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혹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윗

과 골리앗, 요나단, 사울, 아비가일, 밧세바, 나단, 압살롬, 시므이, 다윗의 광야, 법궤,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높이 세워진자, 기쁨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왕, 언약, 공의 등 다윗을 호칭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며 다윗이 왜 성령의 사람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다윗의 모토-한가지 소원(시 28:4), 가훈(왕상 2:4),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왕상 2:2-3)-를 말씀 안에서 찾고, 이를 토대로 나 혹은 가정의 모토를 만드는 과제가 주어졌다. 서른 가정 이상이 가훈을 만들며 말씀 안에 가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네번째 시간 – 모임(공동체)의 사람

모임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 속한 자이며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이다.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25절에는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는 세가지 권면이 담겨있는데 참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을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아닐까? 가정은 저절로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려는 소원과 정성과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한다. 가정예배의 회복이 그것이다. 가정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꿈꾸며 가정예배의 시작을 강조하였고, 그 실제적 제안으로 교회학교 전 부서가 통일된 교재 “Long Story Short” (복음, 그 길고도 짧은 이야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룹을 나누어 교재를 가지고 직접 가정예배를 실습해보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가정예배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다.

성경은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 그 모습을 그려놓았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 교회학교와 가정을 돌아본다. 갓 심긴 나무들, 꾸준히 자라나고 있는 나무들이 그곳에 있다. 지금은 어린 나무들이지만 언젠가는 거목으로 자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나무들이다. 우리는 긴 안목으로 이 나무들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거목으로 자라줄 나무를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속담 중 이런 말이 있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오늘이다.” 우리는 많은 순간,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예전에 제대로 심지 못한 것을 탓하며 후회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 다음세대를 숲을 이룰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 오늘 눈물로 씨뿌리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바로 지금, 그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간다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의인의 비전’은 주님 안에서 실현될 것이다.

단기선교 보고예배 스케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길을 함께 가며...

편집부



천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권장의 식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길'을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 입을 뜨거운 눈물로 찬양하며 2018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시작 하였다.

자주 보아왔던 친근한 얼굴들이 선교 보고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저 한 두주 다녀오는 자리가 아닌 몇개월에 걸쳐 준비하고 연습하며 자기를 드러야 했던 자리였을 텐데, 특별히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얼굴을 보니 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갔구나! 권장의 미래가 저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6월 일본 중기 선교를 시작으로 중국, 케냐, 온두라스, 카작스탄, 아리조나, 캄보디아, 필라델피아까지 모두 100명에 육박한 대원들이 달려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8월 28일 할렘 선교에 참여한 인원까지 하면 올해는 9개 지역에 160여명이 넘는 중, 단기 선교사들이 그 섬김을 다 하였다.

7월에서 8월 말까지는 여름 황금 휴가철이다. 일년에 한 두주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아낌없이 단기 선교로 섬기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듬직해 보인다. 짧게는 한주에서 두주 그리고 한달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각기 한팀을 이루어 준비하였을 것이다. 해당 사역 지역의 언어를 익히고 안경 사역 교육, 찬양, 울동, 단막극 그리고 세미나와 각종 교육을 위한 준비와 교육 그리고 수 많은 자료들, 준비물...일일이 나열 할 수 없는 많은 과정들 가운데 전 대원들은 꼼꼼히 준비하며 기도하며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친교실에서 아이스커피, 떡볶이, 아이스크림, 각테일 과일을 팔아 선교비를 보충하고 선교 바자를 통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이 올 한해

도 함께 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라는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의 메시지는 눈 앞에 당장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아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훗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전하여졌다. "감사와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드러 났다"는 청년들의 고백.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교"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도 이어졌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임을 깨닫게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눈물로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모든 과정들이 마치 본 것처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슨 은혜일까! 저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보내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 오래 남아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질 것이다.

내년엔 이 은혜를 사모하여 용기를 내는 더 많은 단기 선교 지원자가 있기를 소망해 보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 곳까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는 반드시 꼭 함께 복음 증거자로 있어 그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임을 다짐하며 2018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는 마무리 되었다.

간증 - 중국

喜乐的泉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青年
ZHOU.WEN 청년

平安, 弟兄姐妹。我是中文堂的周闻。感谢神这次拣选带领我们中国短宣队去云南短宣。这是我第一次短宣。这次短宣让我看到了在物质贫乏中生活的基督徒信心的彰显。弟兄姐妹们, 你们快乐吗? 如果有一天你们失去了带给你快乐的人、事、物, 你们是否依然会快乐呢? 快乐和喜乐是不一样的, 快乐是建立在环境上的一种情绪, 而喜乐是从内而外的一种状态。去短宣之前, 我以为自己是个凡事感恩, 常常喜乐的人; 但换位思考以后, 我发现我远远不如云南的弟兄姐妹。我发现我的感恩和喜乐是因神所赐而不是因神所是。哈巴书3:18说: “然而我要因耶和华欢欣, 因救我的神喜乐。”这里就说到我要因耶和华欢欣, 而不是因耶和华(所赐)欢

欣。我向神祈求, 求主成为我喜乐的泉源, 也帮助我刚强壮胆在日后的十字架的道路上能面对一切的试炼。亲爱的弟兄姐妹们, 求主帮助我们让我们可以凡事感恩。在顺境中感谢神的恩典, 但主耶稣说过: “在世上你们有苦难”, 到那时恳求天父赐我们像保罗和西拉一样在逆境中祷告赞美神的心。因为我们身边的人、事、物都会改变, 但我们的父、我们的主、我们的神祂爱我们的心永不改变。祂是能把咒诅变成祝福的神。一切荣耀归于我们天上的父直到永永远远!

간증 - 케냐

살아계신 하나님



고등부 김하나

저는 올 여름 아프리카의 케냐로 단기선교를 다녀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어려운 상황속에서 저를 케냐로 보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간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지구를 반 바퀴 돌아야하는 먼 곳으로' 단기선교를 가겠다고 했을때 부모님의 반응은 '절대 안된다!' 였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김도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하셨고, 팀원들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단기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오지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기쁨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곳에 간 이유가 그곳의 어린이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됨을 위한 것임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케냐에서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제 자신의 철 없음을 돌아보며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입은 옷은 누추하고 음식은 우리가 이 곳에서 매일 쉽게 먹는 음식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곳에 있는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쉽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한 소녀는 우리가 가져간 줄넘기와 훌라후프 놀이 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밤 팀모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때에, 제 입에서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다만 눈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의 가장 소중한 은혜의 순간이었고 제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기쁜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과 행복, 가슴 아픈, 부끄러움과 회개가 함께 하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이었고,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제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밤의 감정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단기선교를 통해 제 자신과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변화된 우리들을 위한 경험이었다고 믿습니다.

단기선교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곳에 미리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은 실로 이처럼 놀라운 축복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곳에 오늘 모인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당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몇 달 전 제가 첫 단기 선교팀의 모임에 참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사랑하십니다. 단기선교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고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쁜 간증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전성호, 첸위지 목사님과의 미니 인터뷰

지난 9월11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퀸즈장로교회에 참으로 감동되고 영광스런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성호 목사님과 첸위지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분은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옮긴다면, 우리 교회 연혁에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기록하신 분들이십니다.

전성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어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되신 후 신학교 학업을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셨고 첸위지 목사님은 퀸즈장로교회의 다민족 선교의 비전 아래 우리와 함께 중국어 예배부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하시던 중 목사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뿐 아니라 다른 한인 교단 안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최초의 외국인 목사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분과 간단한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성호 목사님

1. 평신도에서부터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까지의 모든 직분을 거치시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받은 은혜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8년 6월달에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노회 목사고시를 거쳐서9월 11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난36년을 섬겨오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가지 생각이 주마등같이 머리 속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2. 캄보디아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5년 4월, 357기 Perspectives 집중과정 Program중 Reading Assignment를 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해외 선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베델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 파송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회에서 담임목사님을 통해

듣고서 전광인 권사와 “우리라도 가서 베델교회를 지키기”로 의견을 모은 후에, 전광인 권사가 가까운 권사님들 몇분과 우리가 집에서 결정한 내용을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있다가 2018년도 뉴욕노회 목사 가족 수련회/기도회가 있어서 저는 노회 회계로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참석하셨던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느닷없이 “캄보디아로 선교가려고 한다며?”물으셨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미 집사람과 결정을 한 일이라 “예,그렇습니다.” 했더니 “가려면 평신도로 가지말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가!” 하시면서 그날은 만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전권사와 장영춘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상의했더니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쉽게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다음날 상의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놀라신 눈치신데 바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2015년 가을 학기 9월달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언제 캄보디아에 가실 계획이며, 그곳에서의 사역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신자에서 목사로 키워주신 퀸즈장로교회 이름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가 교회의 필요를 보시며 지침을 주실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계획은 집을 비롯한 개인 주변정리며, 시무장로 은퇴며, 주위에 계신 친지들과 구역식구들과도 그렇고 대충 2019년 3월 초쯤 현지로 향하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역지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으로 가려고 합니다. 역시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의 지침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지에 가서는 첫째는 까다로운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1년이상 투자하며, 동시에 현지 사정도 익히고, 낯선 기후에도 잘 적응해야 장기체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떠나는 저희를 위하여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하신바 모든 민족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그 날까지 순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장 속 첫 축도



陈玉捷牧师采访
첸위지 목사님

하나님의 진실하신 축복과 은혜가 회중들의 영적 생명 가운데 부어지는 것임을 믿기때문!

1. 恭喜您正式被按立为牧师。按立时您的感受如何? 请表明一下以后决心?

목사 안수 받으신 것 축하합니다. 안수 받는 동안 어떤 마음이셨는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谢谢你! 在按立时, 非常感恩、喜悦, 并觉得非常的荣幸, 能够被神拣选, 祝福使用。很感恩有这样子的机会被KAPC接纳, 被这么多的牧者祝福并按立。心中充满了喜悦与感恩。

감사합니다! 안수 받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축복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KAPC와 많은 목사님들의 축복 속에서 안수 받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希望神继续的赐福我们教会的中文堂同工, 使更多社区的中国人

4. 목사님과 사모님의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 1) 우리 아들 정일 전도사가 산호제에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이 되어서 형통함으로 축복 받도록
- 2) 우리 딸 제인이를 미혼인채 혼자 두고 가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 결혼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을 이루도록
- 3) 우리 부부가 현지 기후와 음식에 잘 적응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 4) 개인적 주변 정리가 빨리 되서 빠른시일 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因着我们中文堂的信徒而蒙恩得救·求上帝将得救的人数不断地加添给我们·像初期教会一样·三千五千万的人不断来悔改信耶稣·聚在一起敬拜·赞美·学习·事奉神。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교회의 중국어 예배부 사역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지역 동포들이 중국어부의 성도들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초대 교회처럼 3천명, 5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2. 第一次为中文堂祝福时有什么感动呢? 能不能分享一下当时感动有多大?

중국어 예배부에서 처음 축도하시면서 어떠한 감동이 있었으며 얼마나 감동이 크셨나요?

第一次举手为中文堂的会众祝福时, 心里有志忑有紧张, 因为是第一次, 怕紧张而背错祝福的经文。而另一方面, 很感恩, 因为中文堂的弟兄姐妹终于在每周崇拜结束时, 能得着从神而来的祝福。我们相信这个祝福不纯粹是个仪式, 乃是上帝真实的福气与



恩典会降下来在会众的生命里。

처음으로 중국어 예배 회중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하여 축복 성구를 잊어버릴까 걱정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매주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축복은 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축복과 은혜가 회중들의 영적 생명 가운데 부어지는 것임을 믿기때문입니다.

3. 到现在为止您是以什么目标带领中文堂的?以后又有什么目标呢?

그동안 중국어 예배부를 어떤 목회로 이끌어 오셨으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目前对中文堂的目标只有两个,所有事工都是向着这两个目标。第一是栽培信徒的灵命,越来越成熟长进,生命的品格能够越来越像我们的主耶稣基督,里面有柔和、谦卑、仁爱、和平等等的美德。并且,从自我中心的生命变成以基督为中心的生命,开始为主而活,为主的使命而奋斗。第二是广传福音,藉着栽培,鼓励信徒在每日的生活中为主作见证;在教会的不同事工中都安排福音性的聚会与活动,让更多的新朋友与社区的华人能够认识并接受耶稣基督为救主。

현재, 중국어 예배부는 두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되고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사랑과 화평 등등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한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여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을 통해 전도를 위한 모임과 활동을 만듦으로써, 더 많은 새신자들과 지역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将来以后的目标或异象,与这两个一样,不同的就是不断地扩大,我们要带领万人信耶稣,栽培他们作门徒,各个背起自己的十字架来天天跟随主。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은 위에서 말씀드린 두가지와 마찬가지로, 좀 다른 점이라면 끊임없이 확장하여 만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제자로 양육하며, 각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4. 您家庭里有什么特别的祷告事项吗?可以分享一下吗? 목사님 가족의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求主保守师母身体健康、灵性丰盛,与三个孩子爱耶稣,事奉耶稣,不单有敬虔的生命,并且在各自的学业里有美好的学习,使我的事奉没有任何的后顾之忧。谢谢代祷!

주님께서 사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며, 세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각자의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저의 사역 또한 걱정 대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对于多民族宣教, 牧师您有什么异象吗? 다민족 선교에 대한 목사님의 비전이 있으신가요?

感谢上帝,让我有机会被主带入神赐给金星局主任牧师的各民族崇拜与宣教的异象,很荣幸能成为多民族异象的一员。目前我的感动与异象就是配合主任牧师的异象,在中国人这一块尽心竭力的摆上,让华人信徒在多民族崇拜与宣教的异象中兴起发光。

하나님께서 김성국 목사님에게 다민족 예배와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저도 이런 기회에 함께 다민족의 비전을 향해 한 일원으로서 섬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현재, 저의 감동과 비전은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협력하여, 중국 성도들도 다민족 예배와 선교의 비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虽然神向两位牧师呼召的目的是不同的,但不管是在纽约还是在柬埔寨,很明确的神按立他们是为了拯救灵魂。我们为两位牧者的未来事工祝福和代祷,愿两位牧者为了那使命,就是拯救灵魂的目的而献上一生。愿神的同在与恩惠使两位牧者的事工结出丰盛的果实。

두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른 듯 보이지만 뉴욕이던 캄보디아던 분명한 것은 영혼구원을 위해 두 목사님을 세우셨고 그 사역을 위해 일평생을 오직 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실 두 분의 앞길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께 받은 고귀한 사명

정혜경권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 귀하신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두 사역자들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주관으로 본 교회의 전성호,첸위지 두 분의 목사안수 임직예배가 9월 11일 오후 7시에 본 교회에서 엄숙히 드려졌다. 임병순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Gloria Singers의 은혜로운 찬양 '기름 부으심' 후에 노회장 문중은목사님께서 '주께 받은 사명'(행 20: 22-24)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종,목사로 세움 받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한다. 목회의 길이 결코 쉽거나 순탄하지 못하며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탄과 세상과 자신의 정욕과 싸우며 끝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달려가야 한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하며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 연약해서 쓰러지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므로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귀한 말씀이었다. 노회장의 임직자에게 대한 서약과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 악수례후에 노회장의 공포가 있었고 CM Choir의 특별 찬양 '여호와의 축복 넘치네'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규본목사님의 권면(말씀의 사람, Vision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영상목사님의 축사(고전4:1-2의 말씀-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지고 여겨지며 충성으로 이 비밀을 감당하게 됨을 축하)후에 전성호목사님의 답사가 이어졌고 손한권목사님의 축도로 목사 임직 예배를 모두 마쳤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새롭게 안수 받은 두 분 목사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복된 전도사,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큰 영광돌리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中文堂”中秋节”庆祝会掠影 추석맞이 대잔치

姜吉琼 执事
Jiang Jiqiong



今年9月24日,是海外华人格外看重的传统佳节--中秋节。这是一个阖家团聚的日子,也是远涉重洋、离别故土的华人最容易触景生情、思念亲人的日子。因有着同样的文化背景,体谅华人同胞”每逢佳节倍思亲”的思乡之情,在陈玉捷牧师黄海玉传道共同倡议策划、众同工的齐心努力下,中文堂在9月23日题为《罪人的救主》的福音信息之外,还特别预备了一场庆中秋活动,让众弟兄姐妹,及未信主的家人新朋友,在主日崇拜之余,一同在主里渡过了一个难忘的中秋佳节。

庆祝活动在敬拜小组《一切歌颂赞美》、《爱使我们相聚在一起》,和《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热情洋溢的歌声中,拉开了序幕。幼儿部6岁以下20名左右的小朋友,首先为我们献上了《我的家要荣耀耶和华》,把全场气氛带动了起来。接下来陈玉捷牧师的短讲,向新朋友和慕道友再次发出了“中秋静思”的信息,让信徒与非信徒在这佳节都能够安静下来,停下忙碌的生活步伐,思想一下人生的意思,忙碌的目的,使我们再一次转向神。牧师的两次呼召,有30多位新人与没有得救确据的人举手决志,愿意接受耶稣基督成为他们个人生命的救主。

传统节日中的传统节日当然是必不可少,但以理团契的葫芦丝,路得团契的古筝,教育部师生的手语舞蹈,中

秋猜灯谜游戏、朝鲜族姐妹们的扇子舞,以及腓立比、拿俄米、路得、提摩太四个团契的诗歌竞赛,把庆祝会推向了高潮。

庆祝会在一片感恩、喜乐的气氛中降下帷幕,欢声笑语却在体育场久久回荡。当天参加中文堂福音崇拜的有369人;参加中秋庆祝活动的有340人左右。感谢陈玉捷牧师的饭食奉献,黄海玉传道及饭食小组的辛劳付出,以及弟兄姐妹们自由奉献的月饼、水果,让大家一起渡过了一个愉快的主日,和一个不一样的中秋佳节。

在主里,我们是一家人,韩中长老教会是我们属灵的家。甚愿那些在外漂荡的灵魂,早日归家!



지난 9월 24일은 해외 중국인이라면 각별히 중히 여기는 전통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고, 특별히 바다 건너 멀리 외국으로 떠나있는 사람들이 고향 친인척들을 그리워하는 날입니다.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매년 이러한 전통 명절일 때면 친인척에 대한 그리움이 배가 됩니다. 첸위제 목사님과 황혜옥 전도사님이 함께 기획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협력하여 중국어 예배부는 9월23일 주일날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 추석맞이 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새가족들을 모시고, 주일예배가 끝난후 함께 주님안에서 잊지 못할 추석을 보냈습니다.

경배와 찬양팀의 “모든 찬양을” 을 시작으로 신나는 찬양으로 서서히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진 6세 이하 유얼부 어린이들의 귀여운 율동과 찬양은 잔치분위기를 하고조 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첸 목사님은 짧은 새가족들과 회중들을 향하여 빨리 돌아가는 생활패턴을 잠깐 멈추고 인생의 의미와 그 목적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콜링하시자 30여명의 새가족과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회중이 두 손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전통명절 대잔치에 노래가락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다니엘 청소년부와 룯 선교부에서 준비한 악기연주, 교육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수화무용은 평시엔 볼 수 없었던 성도님들의 또다른 모습들을 볼수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교포부자매님들이 준비한 부채춤과 빌립, 나오미, 룯, 디모데 네 선교부의 찬양시합은 잔치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추석맞이 대 잔치는 감사와 기쁨의 도가니속에서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웃음소리는 회장에 오래동안 메아리쳤습니다. 이날 전도집회에는 369명이 참석하였고, 추석맞이 대잔치는 34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9월12일 목사안수를 받으신 첸목사님께서 이날 추석 음식을 도네이션해주셨고, 황혜옥전도사님과 취사부의 자매님들이 토요일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만드시느라 수고해주셨습니다. 그리고 Moon Cake와 과일들을 도네이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의미있는 잊지못할 추석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안에서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퀸즈장로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밖에서 떠돌고 있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中文堂中秋节聚会

“自与他们同在，作他们的神。神要擦去他们一切的眼泪；不再有死亡，也不再有悲哀、哭号、疼痛，因为以前的事都过去了。” 启示录21:1-4。哈利路亚！人与神团圆了，这是人在耶稣基督里的大结局，大团圆。

感谢主，藉着圣灵的运行，会众们专心听道，圣灵将神的话扎在人的心里，真理发出亮光，使坐在黑暗中的人看见真光，而走出黑暗。在两堂信息结束呼召时，约有30人左右愿意决志悔改信耶稣。感谢赞美主！荣耀归于向我们发慈悲、施慈爱、赐团圆的神！

早堂崇拜一结束，我们在体育场就开始了中秋节的庆祝会。为此庆祝会，我们预备了很多的节目，有儿童献诗、儿童舞蹈、葫芦丝、古筝、各团契的歌唱、扇舞、猜灯谜与美食等等。看到很多新朋友在这样欢庆的聚会中得祝福，我们心里充满了喜悦与感恩。

最感动的还是我们的弟兄姐妹，为了这个聚会，很多弟兄姐妹下班后齐心协力，毫无怨悔的预备每个节目与细节工作。姐妹们提早预备膳食，弟兄们帮忙摆设桌椅，青年人尽心用手工做出了精美的花朵，装饰在会场里，使得整个会场充满了中秋节的气氛，各团契的弟兄姐妹，舞蹈者和乐器表演者，极力的抽出时间练习诗歌、舞蹈与乐器。看到众弟兄姐妹如此甘心乐意的付出与摆上，我的心里充满了感恩与赞美。如保罗对腓立比的弟兄姐妹这么说，“我每逢想念你们，就感谢我的神；每逢为你们众人祈求的时候，常是欢欢喜喜的祈求。因为从头一天直到如今，你们是同心合意地兴旺福音。” 腓立比书1:1-5。更加大卫所说，“看哪，弟兄（姐妹）和睦同居是何等的善，何等的美！” 诗篇133:1。

感谢赞美上帝，为我们预备这么好的家，使我们能够在这家里同心合意的完成主所托付于我们的使命。为这庆祝会感谢主，为有人蒙恩得救感谢主，为了每一个爱主事主的弟兄姐妹感谢主。有你们是我们的福气！耶稣爱你！愿主赐双倍的恩典与祝福在每位弟兄姐妹的婚姻、家庭与生命里。

以马内利！主与我们同在！荣耀归于三一真神，我们的阿爸天父！

2016년 중국어 예배부에서는 처음으로 믿지않는 친구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추석모임을 가졌었다. 짧은 메세지와함께 게임, 축하공연, 준비한 선물과 음식으로 성도님들과 새가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올해 2018년 추석은 9월 24일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3일주일날, 추석맞이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더욱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

기도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다. 더욱 1부예배때에는 양손관을 짝 채워서, 늦게 온 분들을 위해 의자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예배에는 모두 369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찬양대가 부른 “여호와와는 애통하는자를 가까이 하신다.” 는 먼저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말씀과도 일치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26절 말씀이었다.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였다

추석은 함께 모이는 명절이다,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바램일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바램이다. 인생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별이 있었을까? 하지만 인류의 제일큰 슬픔과 이별은 죄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다.(사59:2)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4:16)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다시 모이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와 다시 모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소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모이는 것

이다. 계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났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그리스도안에서의 대결말 즉 하나님과 다시 모이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어둠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속에서 나오게 하였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배가 끝난후 우리는 지하 체육관에 모였다. 청년들의 수고로 체육관은 추석명절 분위기로 데코레이션 되어있었다. 많은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이 기쁜 날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벅찼다. 그리고 시편 말씀이 떠올랐다. 시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좋은 집을 예비해주셔서 우리가 이 집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동원 주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가운데 내려주시길 바란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영광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중국어 예배부 추석축제

陈玉捷牧师/첸위지 목사님

2016년 중국어 예배부에서는 처음으로 믿지않는 친구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추석모임을 가졌었다. 짧은 메세지와함께 게임, 축하공연, 준비한 선물과 음식으로 성도님들과 새가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올해 2018년 추석은 9월 24일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3일주일날, 추석맞이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더욱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

기도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다. 더욱 1부예배때에는 양손관을 짝 채워서, 늦게 온 분들을 위해 의자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예배에는 모두 369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찬양대가 부른 “여호와와는 애통하는자를 가까이 하신다.” 는 먼저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말씀과도 일치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26절 말씀이었다.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였다

추석은 함께 모이는 명절이다,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바램일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바램이다. 인생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별이 있었을까? 하지만 인류의 제일큰 슬픔과 이별은 죄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다.(사59:2)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4:16)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다시 모이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와 다시 모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소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모이는 것

이다. 계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났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그리스도안에서의 대결말 즉 하나님과 다시 모이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어둠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속에서 나오게 하였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배가 끝난후 우리는 지하 체육관에 모였다. 청년들의 수고로 체육관은 추석명절 분위기로 데코레이션 되어있었다. 많은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이 기쁜 날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벅찼다. 그리고 시편 말씀이 떠올랐다. 시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좋은 집을 예비해주셔서 우리가 이 집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동원 주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가운데 내려주시길 바란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영광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自与他们同在，作他们的神。神要擦去他们一切的眼泪；不再有死亡，也不再有悲哀、哭号、疼痛，因为以前的事都过去了。” 启示录21:1-4。哈利路亚！人与神团圆了，这是人在耶稣基督里的大结局，大团圆。

感谢主，藉着圣灵的运行，会众们专心听道，圣灵将神的话扎在人的心里，真理发出亮光，使坐在黑暗中的人看见真光，而走出黑暗。在两堂信息结束呼召时，约有30人左右愿意决志悔改信耶稣。感谢赞美主！荣耀归于向我们发慈悲、施慈爱、赐团圆的神！

早堂崇拜一结束，我们在体育场就开始了中秋节的庆祝会。为此庆祝会，我们预备了很多的节目，有儿童献诗、儿童舞蹈、葫芦丝、古筝、各团契的歌唱、扇舞、猜灯谜与美食等等。看到很多新朋友在这样欢庆的聚会中得祝福，我们心里充满了喜悦与感恩。

最感动的还是我们的弟兄姐妹，为了这个聚会，很多弟兄姐妹下班后齐心协力，毫无怨悔的预备每个节目与细节工作。姐妹们提早预备膳食，弟兄们帮忙摆设桌椅，青年人尽心用手工做出了精美的花朵，装饰在会场里，使得整个会场充满了中秋节的气氛，各团契的弟兄姐妹，舞蹈者和乐器表演者，极力的抽出时间练习诗歌、舞蹈与乐器。看到众弟兄姐妹如此甘心乐意的付出与摆上，我的心里充满了感恩与赞美。如保罗对腓立比的弟兄姐妹这么说，“我每逢想念你们，就感谢我的神；每逢为你们众人祈求的时候，常是欢欢喜喜的祈求。因为从头一天直到如今，你们是同心合意地兴旺福音。” 腓立比书1:1-5。更加大卫所说，“看哪，弟兄（姐妹）和睦同居是何等的善，何等的美！” 诗篇133:1。

感谢赞美上帝，为我们预备这么好的家，使我们能够在这家里同心合意的完成主所托付于我们的使命。为这庆祝会感谢主，为有人蒙恩得救感谢主，为了每一个爱主事主的弟兄姐妹感谢主。有你们是我们的福气！耶稣爱你！愿主赐双倍的恩典与祝福在每位弟兄姐妹的婚姻、家庭与生命里。

以马内利！主与我们同在！荣耀归于三一真神，我们的阿爸天父！

2016년 중국어 예배부에서는 처음으로 믿지않는 친구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추석모임을 가졌었다. 짧은 메세지와함께 게임, 축하공연, 준비한 선물과 음식으로 성도님들과 새가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올해 2018년 추석은 9월 24일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3일주일날, 추석맞이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더욱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

기도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다. 더욱 1부예배때에는 양손관을 짝 채워서, 늦게 온 분들을 위해 의자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예배에는 모두 369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찬양대가 부른 “여호와와는 애통하는자를 가까이 하신다.” 는 먼저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말씀과도 일치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26절 말씀이었다.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였다

추석은 함께 모이는 명절이다,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바램일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바램이다. 인생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별이 있었을까? 하지만 인류의 제일큰 슬픔과 이별은 죄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다.(사59:2)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4:16)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다시 모이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와 다시 모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소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모이는 것

이다. 계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났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그리스도안에서의 대결말 즉 하나님과 다시 모이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어둠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속에서 나오게 하였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배가 끝난후 우리는 지하 체육관에 모였다. 청년들의 수고로 체육관은 추석명절 분위기로 데코레이션 되어있었다. 많은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이 기쁜 날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벅찼다. 그리고 시편 말씀이 떠올랐다. 시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좋은 집을 예비해주셔서 우리가 이 집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동원 주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가운데 내려주시길 바란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영광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以马内利！主与我们同在！荣耀归于三一真神，我们的阿爸天父！

2016년 중국어 예배부에서는 처음으로 믿지않는 친구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추석모임을 가졌었다. 짧은 메세지와함께 게임, 축하공연, 준비한 선물과 음식으로 성도님들과 새가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올해 2018년 추석은 9월 24일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3일주일날, 추석맞이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더욱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

기도와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주일날 1부와 2부 예배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다. 더욱 1부예배때에는 양손관을 짝 채워서, 늦게 온 분들을 위해 의자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날 예배에는 모두 369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찬양대가 부른 “여호와와는 애통하는자를 가까이 하신다.” 는 먼저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고, 말씀과도 일치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26절 말씀이었다.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였다

추석은 함께 모이는 명절이다,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바램일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바램이다. 인생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별이 있었을까? 하지만 인류의 제일큰 슬픔과 이별은 죄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진 것이다.(사59:2)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4:16)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다시 모이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와 다시 모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모이는 것은 사람들의 소원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모이는 것

이다. 계21:1-4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났다. 이것은 인간이 예수그리스도안에서의 대결말 즉 하나님과 다시 모이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어둠가운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속에서 나오게 하였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배가 끝난후 우리는 지하 체육관에 모였다. 청년들의 수고로 체육관은 추석명절 분위기로 데코레이션 되어있었다. 많은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이 기쁜 날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벅찼다. 그리고 시편 말씀이 떠올랐다. 시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좋은 집을 예비해주셔서 우리가 이 집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동원 주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가운데 내려주시길 바란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영광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최성은 집사

평양대부흥 운동의 주역들

길선주 목사

새벽 기도회를 처음 시작하고 계시록 1만독한 평양대부흥의 중심에 있던 영계의 거장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어 평양, 개성, 서울, 목포 등지로 확산되고 1907년 1월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결집되어 나타난 ‘평양 대(大) 부흥’으로 발전한 부흥 사건은 한국 기독교사에 중요한 역사로서 100년이 지난 요즘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아가페에서는 본호부터 ‘평양대부흥’의 주역들을 향후 몇달동안 소개해드리고자한다.

평양대부흥 운동을 이끈 길선주 목사 (1869년 3월 25일 ~ 1935년 11월 26일, 아호: 영계)는 평양장로회 신학교 1회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 7인 목사 중 한 사람으로 ‘말세학’을 저술한 목사이며 독립운동가이다. 1869년 평안남도 안주 출생으로 일곱 살부터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열 한살 때 신선행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젊은 시절 그는 한국의 여러 종교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다. 사모하거나 갈망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찾아 나섰다. 그랬던 그가 친구 김종섭이 건네준 ‘천로역정’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아내가 읽어주는 ‘천로역정’은 그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이었다. 목마르게 추구하던 영원한 진리를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같은 종교적 열정은 그대로 신앙 열정으로 이어져 그는 1897년 8월 15일 그레함 리에게서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가족 복음화를 실천했다. 길선주는 개심하던 해에 영수직을 받았고, 33세에 장대현 교회 장로에 선출되었다. 1902년 마포삼열 선교사는 그에게 평양장대현교회와 황해도 각 교회의 조사 임무를 부과했다. 1903년에는 마포삼열 선교사가 설립한 평양장로회신학교에 입학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

길선주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대단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 1907년 2월 홀(E F Hall) 선교사는 이렇게 본국에 보고했다. “길선주는 한국인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며 실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의 설교를 들은 한 선교사는 또 이렇게 평했다.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청중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국적의 사람을 좀체 들어보지 못했다.” 서양 선교사들은 무디 피어슨 고든 심슨 등 대단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한국에 입국한 이들도. 그런데도 그렇게 높이 평한 것이다. 길선주의 음성은 달콤했고 그의 예절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는 놀라운 설

득력으로 심령에 호소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웃고 울다 엄청난 죄의 확신으로 전율했다.

대부흥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사람

돌이켜 볼 때 그는 한국교회 대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특별한 인물이었다. 하다가 원산부흥운동의 포문을 열고 리가 평양대부흥을 견인했다면 길선주는 그 저변을 확대시킨 주역이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1907년 장대현교회 사경회는 평안남도 남자사경회로 장로교 400여 교회 연합으로 모이는 집회였다. 2,000여명이 모였다. 2일부터 시작된 사경회는 마지막날인 15일 밤에 끝났다. 박용규의 <평양대부흥운동사>에 의하면 1월 6일 주일저녁집회가 끝날 무렵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의 통성기도와 공개적인 죄고백으로 성령의 임재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길선주 장로가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모 교수는 길선주의 회개 내용은 “형제들을 질시한 것과 방위량 선교사를 미워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길선주의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대신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 중 (미화로 몇 백불을) 일부를 떼어 먹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하나의 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길선주가 평양대부흥운동의 불씨 역할을 했고, 이후 평양대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길선주는 장대현교회 사경회 6개월 후 1907년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그 해 설립된 독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대현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으로 20년을 시무했다. 그후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교인들의 배척으로 장대현교회를 사임하고 이항리교회를 창립하여 목회하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했다.



▲ 길선주 목사



▲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인 성도들

길선주의 놀라운 영성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에서 나왔다. 1906년 길선주는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장대현교회에서 친구 박세록 장로와 함께 시작한 새벽기도는 1909년 백만인구령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한국교회 영성의 뿌리가 됐다. 또한 그는 구약을 30회 이상 통독했고 창세기와 에스더는 540회 이상 읽었다. 신약은 100회 이상 통독했고 목시록은 1만독을 했으며 요한복음은 500회 이상 읽었다.

기독교의 영성을 민족운동으로

길선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1898년 독립협회 평양지회 조직에 참여했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첫 아들을 잃었으며 1919년 3·1운동을 적극 독려했다. 그가 볼 때 3·1 독립선언

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었다. 온 민족이 하나 돼 “나라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이 확신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흔들림이 없었다. 길선주는 이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3·1 독립운동 서명자로 투옥됐고 여기에 가담한 둘째 아들도 징역을 살았으며 딸 진주와 아들 진섭은 피신했다. 그는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시간 나는 대로 목시록 강의를 재정리하고 말세학 강의를 체계화시켰다. 출옥 후에는 전국을 다니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은 한국인들에게 언제나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줬다. 길선주는 1927년 20년간 담임하던 장대현교회를 사임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혼신을 다해 잠든 영혼을 깨우다 1935년 11월 26일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선교사들의 영성을 한국적 상황에 아름답게 계승해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민족을 살리도록 하는 일에 그만큼 탁월하게 쓰임 받은 사람도 드물다. 한국교회가 다시 그의 영성을 회복하길 소망한다.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핀 길선주 목사(앞줄 중앙)와 마펏(마포삼열) 선교사(좌) 그레함 리(이길함) 선교사(우)

참고문헌

1.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100주년 기념 개정판 (2007). 생명의 말씀사
2. 길진경, 영계 길선주 (1998). 종로서적
3. 국민일보 (2017). 영성의 현장을 찾아서 <제4편> 평양대부흥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한국교회 영성의 거장’, 위대한 전도자, 길선주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923697586>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것

전진영 초등부 인턴 전도사



목회를 하신 증조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어린시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인턴 전도사 전진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쿤즈 장로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라는 직분까지 맡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평양에서 목사님이셨던 증조 할아버지때부터 4대째 신앙을 지키는 집의 막내 딸로 태어났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빠와 초등학교 교사셨던 할머니와 엄마 밑에서 자라 어렸을 때 부터 남을 돕는 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선교에 앞장 서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선교사님들과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선교와 외국어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늘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학업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대학을 영어영문학과로 진학하고 대학원까지 같은 전공으로 마친 후 한국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2014년 여름, 우연히 미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가르치는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던 터라 흔쾌히 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각지 않았던 공부 할 기회가 생겼고 어떤 길을 갈까 기도하던 중 성적에 연연하여 지식만 주입하는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의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유아교육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레이넵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프리케이 아이들을 일년동안 가르쳤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교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곳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시설, 그리고 풍족한 자원이 있는 학교라서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니 매일 시무룩하



베트남 선교를 활발히 하시던 아빠를 따라 갔던 선교지에서

게 등교하던 아이가 변하여 밝게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시로 와서 나에게 안기는 그 아이를 안아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재능과 사랑의 마음을 가난하고 힘든 지역의 아이들에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아빠의 따뜻한 포옹도 사랑도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안아준다면 작으나마 그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선생님이 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다달았을때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고만함에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나서 목표로 한 것들은 좋은 환경의 학교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듯이 나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친구로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선생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년의 근무 기간이 끝나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계획했던것과는 다르게 신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에 머무르려면 다시 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학교 지원시기가 많이 지나 가고싶었던 학교들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공부해보고 싶었던 신학교의 지원 기간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학을 하겠냐는 막연한 두려움에 애써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선생님이로 주말에는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싶다는 막연한 바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에 임하는 마음과 소망

가족과 떨어져 미국이라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 훈련받고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봄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모토가 된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적 가족사진-아빠, 작은아빠, 친오빠, 사촌오빠까지 네명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권장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귀한 동역자 청년들과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욘 1:21)”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나 되게 하신게 하나님인데 잘되면 내덕 안되면 하나님을 탓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모든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주시든 가져가시든 믿음으로 주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해야하고 내가 잘되고 안되고가 아닌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야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초등부 인턴 전도사라는 직분도 제가 감당 할 수 있는게 아니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선배 교역자님들께 많이 배우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대대히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많은 양의 학교공부와 매주 필라에서 뉴욕으로 다니는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지혜와 강건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사 단합대회

늦여름을 수놓은 초등부교사들의 사랑

교사 강주안



기다리던 8월의 마지막 토요일(25일)이 왔습니다. 이 날은 저희 초등부 교사 단합대회 겸 피크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창하고 좋은 날씨로 축복해주셔서 더욱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전에 약속 장소인 Jones Beach 근처로 꽃게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게를 한마리도 낚지 못하고 가지고 간 Cage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바로 차윤일 부장집 사님 댁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집사님 댁의 넓은 뒤뜰에 모여 맛있는 고기와 여러가지 음식을 먹으며 참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번 모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초등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섬기셨던 네분 선생님들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개인 사정으로 아쉽게도 초등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열심과 사랑으로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 너무나 서운하고 아쉬웠지만 그들의 앞 길을 축복해주고 좋은 유대관계를 계속 가지기로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날 이후 저희 교사들은 더욱 견고한 teamwork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부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학생들을 더욱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며 교사들 서로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부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AUSTIN LEE 고등부 인턴전도사

Hello I am the English Education Intern, Austin Lee! I am 23 years old, and I grew up in Long Island in the town of Deer Park. I was born into Shin Kwang Church of New York. After living in Flushing until I was about 5 years old, our family moved out to Deer Park. We continued to attend Shin Kwang Church of New York ever since! My mother immigrated to the States in her twenties, but my father actually moved to Flushing when we was just 14 years old, growing up in the States during the 70s and 80s. I have one younger sister who is in the 11th grade, who has hopes to study art in the future!

Personally, I went through all the motions of church. I went to children’s ministry, elementary, and youth group! Thankfully, I grew up in a family where I was nurtured and encouraged to be and become a man of faith. I went to all the church retreats, had a Christ-seeking community, and even joined the praise team! I learned to sing, play guitar and the drums! I attended Stony Brook University, and graduated in the May of 2017 with a Bachelor degree in Biochemistry. In school, I thought I was a believer during my childhood, but I believe I truly met Our Father in college, upon joining a campus ministry called Korean Christian Fellowship. I remember that in my second month of college, I went to a revival and seriously accepted Christ there for the first time. I immediately joined the ministry, serving through praise team, leading prayer meetings and worship, and eventually became the president of the club my senior year, the same year I received His calling into ministry.

One verse I have held onto for many years is Matthew 16:24 –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I received this passage in between my junior and senior of college. Upon receiving this text, I began to understand the cost and the importance of following Christ. In retrospect, I believe God was also using this text to call me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인턴전도사로 부름 받은 오스틴 이(Austin Lee)입니다. 올해 23세가 되었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Deer Park에서 자랐습니다. 뉴욕신광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으며 플러싱에 5살까지 살다가 이후로 Deer Park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에도 신광교회에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2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아버지는 14살에 플러싱으로 이사를 오셔서 미국에서 70-80년대를 자라셨습니다. 저에게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11학년 어린 여동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유아부에서 시작하여 초등부, 청소년 그룹을 거쳐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신앙인이 되도록 격려하고 양성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의 모든 수련회를 참가하였고 예수님을 쫓는 커뮤니티와 찬양팀에서도 활동하면서 기타와 드럼 연주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Stony Brook University에 진학하여 생화학(Biochemistry)을 전공하고 2017년 5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에서 한국학생 크리스천 Fellowship 모임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대학교 진학 후 2개월 후에 부흥회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그 모임에 가입하였고 찬양팀과 기도모임과 예배를 인도하였고 4학년에는 모임 회장을 맡게 되면서, 그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온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16:24) 저는 이 말씀을 3-4학년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사역자의 길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캠퍼스 사역을 할 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보다 더 큰 뜻을 주셨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제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내어 드리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다른 몇몇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Preaching for the Junior High Ministry



Visiting a local canyon with the Arizona team



With family



Leading worship for the Senior Ministry at 2018 Family Retreat

into ministry – to surrender to His goodness, to follow after Him. I originally used this verse as a theme for my campus ministry, but little did I know it was something else as well. That summer I prayed and begged God that I would be a man after His heart, a man surrendering my own comfort and pleasures for His Kingdom movement. And through this verse and a few others, He revealed His calling for me. It is something I remind myself of time after time, knowing that following Christ is only possible because of His grace and favor.

As an intern pastor, I wish to destigmatize the legalistic, work required and work based faith in youth ministry. I believe, including myself, that many grow in the church just following doctrines, following what to do and not to do as a Christian. The second, even third generation Asian 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in Queens, tend to grow to a culture, faith, lifestyle of having to earn their adoption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But I know our Father has already called

us beloved, and there’s nothing we can do to either gain or jeopardize our salvation. May the generations now and after us become people believing and fully trusting in His sovereignty over our lives!

I am super excited to be here and partake in God’s plan at KAPCQ! I hope to do my best and to bring my best for His Kingdom!

인턴 전도사로 불법적이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탈피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원칙에만 따르고 크리스천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 성장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특히 퀸즈에 사는 이,삼 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기위해 노력하는 문화와 신앙과 생활양식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는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부장선생님을 만나요

교회학교 각 부서에는 말씀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돕는 부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전반적인 부서 내의 모든 사역을 총괄하시며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을 섬기는 부장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교회학교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차세대교육의 현장인 교회학교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부장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아부 윤지영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윤지영 권사입니다. 가족은 남편 윤석현집사, 두 딸 명셋별집사와 윤새롬, 사위 명준모집사, 손자 명수현, 지현, 손녀 세현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41:10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은 나를 위로 하고 이겨낼 힘을 주어서 이 자리 까지 올수 있도록 인도해 준 말씀입니다.

영아부의 비전을 나뉘주세요:

올해 우리 영아부를 이끄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영아부” 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 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일에 힘쓰며 어떤 일이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은혜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며 나아갑니다

영아부를 섬기며 느낀점:

아무 것도 모르는 듯한 아가들이 엄마, 아빠의 가슴에 안겨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인 만큼 우리 교사들이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령충만 함을 구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또 아가들과 각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것 또한 절실함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먼저 능력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할수있다 넉넉히 감당할수 있다” 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유아부 차동미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유아부 부장 차동미권사입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차상남 장로와 딸 빛나, 아들 한얼이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말씀:

에스겔 47:1-5

교회를 향한, 제 삶을 향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역사도 말씀으로 부터 시작되고 또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곧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제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제 삶을 인도하고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며 붙잡는 말씀입니다.

저의 행위도 아닌 저의 노력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가득하여 헤엄칠 건너지 못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소망의 큰 강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합니다.

유아부의 비전을 나뉘 주세요:

유아부는 교회의 올해 표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유아부가 되도록 기도하며 사명으로 헌신합니다. 새 성전건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다 민족과 함께하는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다음 세대의 말씀교육을 위해 힘쓰므로 먼저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유아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아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꼬마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아부를 섬기면서 느낀점:

태중에서부터 영아부에서 부모님의 품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예배 드리는 곳이 유아부입니다. 혼자라는 불안함과 유아부에 혼자 두고가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과 여러가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놀라서 많이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교사의 영적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많은 헌신과 인내와 사랑이 특별히 더 필요하답니다. 그로인해 부모님과 떨어져서도 편안할수 있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채워주고 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하는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이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유치부 계연란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샬롬샬롬^^*

유치부교사로 세움 받은지 어느덧 강산이 두번 바뀐 세월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계연란권사입니다. 가족은 남편 계대원집사와 딸 계민정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 이시라. “ 시편18:1-2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되시며 생명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치부의 비전을 나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치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유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달 주제성구 말씀찬양을 날마다 암송하며 말씀과 찬양 안에 거하는 유치부, 주일성수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유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섬기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가 바뀔때도 유치부가 견고히 세워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오랜 세월동안 함께 하고 계신 많은 교사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순간 고백합니다. 매주일 사랑스런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앞으로의 각오한마디!

약할때 강함되시는 주님 손잡고 겸손히 앞드림으로 사명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유년부 김형섭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형섭 집사 입니다. 가족은 아내 차문희집사, 두 딸 김아인, 김아영입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2

유년부의 비전을 나뉘주세요:

유년부의 주제는 ‘Rejoice In God’s Grace’ 이며 주제 말씀은 행 11: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유년부 학생들이 스스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전삼고 있습니다.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성경구절찾기, 헌금등을 스스로 할수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년부를 섬기며 느낀점:

지난 3개월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많은 것을 궁금해하며 설교시간에 집중하며 질문에 답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유년부를 섬기시는 팽 전도사님과 Veteran 교사님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한결같은 교육의 열정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PTA 멤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년부를 섬기며 어려운점이 있다면:

어려움이라기보다 유년부 만이 안고있는 특별한점입니다. 영아부에서 유치부까지는 한국어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희 유년부부터는 영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 졸업한 유치부 학생들에게 Transition Period 가 필요하지요. 물론 새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 책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저희 유년부 교사들과 PTA와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욱 개인적으로 만날수 있게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초등부 차윤일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차윤일 집사입니다. 처음 퀸즈장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현재 와이프) 를 따라 퀸장에 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저희 가족은 와이프 차진희 집사, 큰 딸 차혜주, 작은 아들 차승주입니다. 장인 이왕수 집사님, 장모님 이성은 권사님도 퀸장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는 롱아일랜드 코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화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장 1절
 제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 로만 하려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면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등부 비전을 나눠주세요:

우리 초등부는 아이들이 초등부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말씀교육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부를 섬기며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들 의 수고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등부를 통하여 제 신앙도 더 성장하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초등부를 섬기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집이 멀다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교역자 캠프를 통해 받은 도전: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열심히 해야함을 느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세워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 초등부 목사님과 교사들, 자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등부 이규성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안녕하세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규성 집사입니다. 가족으론 아내 정유선 집사, 유년부 이채아, 영아부 이수아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23-24

인생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간절히 사랑하며 사는게 제 삶의 중심이고 목표입니다.

중등부의 비전을 나눠주세요:

중등부 학생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등부를 섬기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이고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 안에서 교육부가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아쉽습니다.

교역자 캠프를 통해 받은 도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된 마음과 기도로 교육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도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꿇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최미희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최 미희입니다

미 래가 환한 고등부 에서

희 망과 기쁨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가족은 친정아버님인 황주현 장로님과 남편 최성호집사, 아들, 최서진, 최어진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3:5-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중고등부 때부터 좋아하고,목상한 구절입니다. 사실 영어로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Key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고등부의 비전을 나눠주세요:

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Beautiful Identity in Christ를 가진 학생들, 지금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누림으로 대학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Go back to the bible, Go back to Jesus!!!

고등부를 섬기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너무 좋은 전도사님과 교육위원회,그리고 선생님들과 섬기기에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It is all about teamwork and communication. 즐겁기만 합니다. REALLY! 재미있고 학생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교역자 캠프를 통해 받은 도전:

짧은 camp 였지만,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음식 있는 곳은 모두가 happy ^ ^), 교회 밖에서 여유있게 의논하고 다시 우리의 역할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It isn't about us, it is about the kids, God's children!

[청년대학부 함용식 부장]



본인과 가족소개:

청년 대학부 부장 함용식 장로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함태현 집사, 어머니 함원숙 권사, 아내 함미희 전도사와 아들 함동혁(CA 거주), 딸 김유림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성경말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2-45

대학부의 비전을 나눠주세요: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학부를 섬기며 느끼는 것은:

청년 대학부를 처음으로 섬기면서 우리 퀸장의 청년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헌신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미혹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교역자 캠프를 통해 받은 도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오픈 토크를 하면서 교회학교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은 시간이 귀하게 느껴졌고 더욱 힘을 모아 함께 섬겨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의 어려움과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청년 대학부가 교회의 예배에 모범을 보이면서 더욱 부흥 되도록 기도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아가페 415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가로 푸는 열쇠

- 1 이달 우리 교회 표어
- 3 신약성경 제2복음의 저자
- 5 남편의 집안
- 6 아가바만 맨 구석에 있는 에돔의 항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 쳤던 곳 (신2:8)
- 9 '대적하는 자'를 뜻하며 개인 또는 국가에 대한 적대자를 가르킨다 (욘1:6)
- 10 익살, 해학 (국)
- 12 다윗의 30용사중 잇대의 부친 (삼하23:29)
- 15 칠일 (삼상11:3)
- 16 다름질하여 빠름을 겨루는 육상경기의 한가지 (렘12:5)
- 17 용대가리에 뱀꼬리 (사자성어)

세로 푸는 열쇠

- 1 아셀 자손 (창46:17)
- 2 노아의 아들 야벳의 손자요 야완의 아들이다 (창10:4)
- 4 한해의 네 철 중 셋째 철
- 7 가나안의 한 성읍 (수12:18)
- 8 머리털이 미어써 벗어진 머리 (레13:40)
- 11 어린이들이 즐겨 쓰는 미술도구 (상식)
- 13 배만 타면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증상
- 14 바이블

아가페 414호 문제정답

1	교	육	의	2	달		3	아	4	비	
기				5	시	종				람	
6	다	7	윗		스			8	두		
		9	자	나		10	룻	기			
			리		11	말		12	고	13	백
14	감		15	고	라					부	
16	동	록		17	기	고	만	장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10월 14일 주일 - 24일 수요일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11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2018 제 32회 창학기념을 위한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합창단 찬양밤

지휘: 윤원삼
반주: 나윤주

11.7(수) 8:00 PM 뉴욕심실장로교회 (미감호 목사사무)

11.14(수) 8:00 PM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사무)

11.21(수) 8:00 PM 뉴욕만나교회 (한영호 목사사무)

동부개역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1154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 Tel. (718) 865-1160
학장 김성국 목사

2018년 8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김석주 김사라 청장년부 3-FM2-3

박강성 아글라 2-F13-3

박소란 청장년부 4-WH1-3

백영옥 자라 2-F8-2

강현우 청장년부 2-F2-1

박수연 유스케이노우에 미라이 이노우에 청장년부 4-F4-4

강은영 청년선교부 1-Y-2

박동국 청년선교부 4-Y-2

이연정 김은을 청장년부 3-FH-3

윤신화 방엔젤라 방에일린 청장년부 유치유아 2-F13-3

김광옥 마르타 2-F11-2

김홍성 청장년부 3-FM3-5

김희자 루디아 3-FM3-5

김희정 청년 대학부 1-Y-1

전지철 청년 대학부 3-Y-1

이미너 1-F9-2

Chinese Ministry

吴泽坤 腓立比-3-1

周立果 提摩太-青1-1

夏薇 提摩太-青1-1

宋媛媛 路得-5-3

张好 提摩太-青1-3

张新超然 提摩太-青2-2

林霖 路得-3-1

毛菊妹 拿俄米-5-1

江之予 提摩太-青1-3

王芳 路得-5-1

解学良 腓立比-6-1

邓军 路得-3-4

陈月宋 拿俄米-2-2

陈杰 拿俄米-3-1

陈钊 腓立比-5-1

马佩华 路得1-1

새가족환영회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답자 황은애권사 송경순권사 임광순 성도 심규한청년 송수진청년

*9월호 십자말 당첨자 추첨은 이국향청년께서 해주셨습니다.